탄소중립·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한국건설자원협회'

KORAS

협 회 일 보

제923호 2026.11.25.(수)

「폐관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본격 가동

◇ 이사회, 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응체계 구축
◇ 업계 의견 관철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기후부 협의, 언론 대응 등 추진

최근 김기현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해당 법안이 우리 업계의 경영활동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른 규제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순환골재 사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1월 24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업계 권익보호 및 의견 관철을 위해 조합 이사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협회장과 부회장 3인 및 미래전략위원장 등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현 이사회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의 실효성있는 운영 및 대응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종사자 연명부 징구 및 탄원서 제출, 대표발의 의원 및 국회 기노위 법안 소위원회 위원 면담 등을 발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협의도 병행추진하여 법안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언론 대응을 통해 대외적으로 업계입장과 상황을 알리는데도 적극 앞장설 예정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현황]

비상대책위원회
- **(상임위원장)** 최종민 이사장
- **(공동위원장)** 김동구 협회장, 서주원 수석부회장, 손종석 부회장, 김영철 부회장, 이필규 미래전략위원장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국회 대응	언론 대응	회원사 협력
• (위원장) 김영철 위원장	• (위원장) 이필규 위원장	• (위원장) 손종석 위원장